

경제와 TALK PLAY LOVE

Anycall GALAXY U를 플레이하다

Anycall GALAXY U

코스피지수 7.51(2088.32)
코스닥지수 0.31(533.67)
환율(달러당 원) 0.6(1125.1)
두바이 유가(\$)
-0.03(90.32)

11월

6개월에 35% 수익률
‘농산물펀드’ 짝짝 B4면

“한·미 FTA 車협상 결과 만족”

포드社 빌 포드 주니어 회장



AP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빌 포드 주니어 회장이 10일(현지시간) '2011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미래 자동차의 대명사인 하이브리드·전기차의 시장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 결과가 (포드에) 매우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빌 포드 주니어(64) 포드 회장은 ‘2011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일인 10일(현지시간) 포드 신차 발표회가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자동차 부문의 공정무역역을 이루기 위해 포드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이라며 “만족스러운 결과(output)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드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 협상 직전에 미국 일간지 12곳과 주요 온라인 매체에 ‘한·미 자동차시장이 불공정하며, 이를 고치지 않고는 미국 차를 팔 수 없다’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는 등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빌 포드 주니어 회장은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의 증손자다. 그는 포드가 SUV 붐을 타고 제2 전성기를 맞았던 1998년 41세 나이에 포드 회장에 올랐다. 2001년부터는 CEO까지 겸직하며 포드를 이끌었고, 2006년 보잉에서 영입한 앨런 멀릴리에 CEO 자리를 넘겼다. 포드는 지난해 1~3분기 63억달러(약 7조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4분기 실적까지 합할 경우, 107년 포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포드 회장은 지난해 큰 수익을 올린 비결을 좋은 품질과 차별별 부품 공용화를 통한 원가절감, 첨단기술을 접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 등 3가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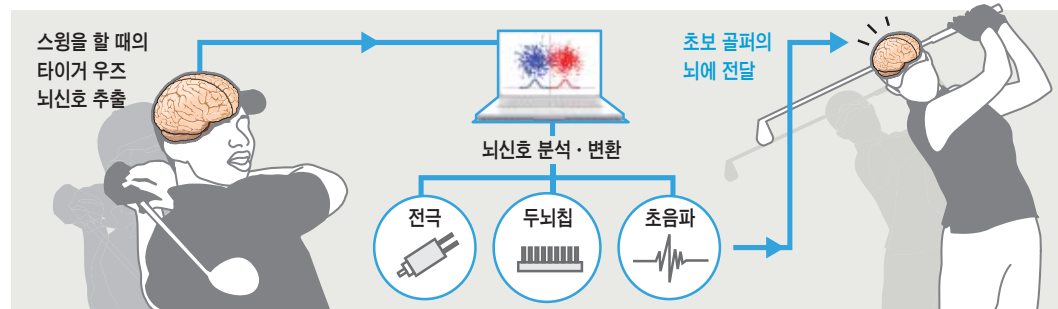
그는 “포드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스템 ‘싱크’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포드는 자동차·IT의 융합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뇌에서 뇌로 정보 전달하는 무선통신 시대 성큼

“주말 골퍼도 우즈처럼 칠 수 있다”

초보골퍼도 타이거우즈처럼 만들 미래의 뇌공학 기술



뇌파를 컴퓨터에 입력

동물·로봇 조종 가능해

미래엔 두뇌칩 등 활용

사람들간 노하우 공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Brain Computer Interface)이다. 어떤 동작을 상상할 때 발생하는 사람의 뇌파(뇌에서 나오는 일종의 전기신호)를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가 이를 컴퓨터나 로봇이 알아들 수 있는 기계적인 명령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기술이다.

유승식 교수와 민병경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만으로 살아 있는 동물을 조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뇌파를 컴퓨터에 전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거쳐, 다시 컴퓨터에 입력된 뇌파를 동물의 뇌에 전하는 ‘컴퓨터-뇌 인터페이스’(CBI·Computer Brain Interface)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유 교수는 “BCI와 CBI를 거치면 결국에는 뇌와 뇌가 연결되는 ‘뇌-뇌 인터페이스’(BBI·Brain Brain Interface)로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팀은 특히 뇌에 전극(電極)을 심어 전선으로 뇌 신호를 주고받던 기존의 방법 대신 초음파를 통한 ‘무선 뇌 통신’을 실현했다.

작년 여름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미래학회에서 미래학자 커츠와일(Ray Kurzweil)은 “미래엔 뇌 시스템의 명령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타이거 우즈의 뇌에 저장된 세계 최고급 스윙 노하우를 초보 골퍼들의 뇌에 전달해, 초보도

타이거 우즈처럼 스윙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 화성에 로봇이나 침팬지를 보낸 뒤, 지구에서 사람의 생각대로 로봇과 침팬지가 탐사하게 할 수도 있다.

◆미래엔 타이거 우즈의 스윙 노하우를 뇌에 이식

국방과 의료분야에선 현실적인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병사의 뇌 속에 칩을 심어 두려움을 없애거나 시각과 청각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유승식 교수는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도 건강한 사람의 뇌 신호를 환자의 뇌에 전달해 만성통증이나 우울증 등 뇌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2면에 계속
보스턴=이영원 기자 ywlee@chosun.com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AFP
뇌공학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지식과 노하우를 이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타이거 우즈의 뇌에서 읽어들인 스윙 노하우를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초보 골퍼의 뇌에 이식할 수 있다.

ChosunBiz.com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도 보세요

産銀 ‘사모펀드 부문’ 떼내 키운다

운용 보수 年200억 달해
사모펀드업계 1위 될듯

산은금융그룹(이하 산은금융)은 올 상반기에 산은은행의 한 부서로 되어 있는 PEF(사모투자펀드)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떼내 그룹 주력 계열사의 하나로 키우기로 했다. 산은 PE(가칭)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할 경우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운용 보수만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PEF업계 1위 회사가 될 전망이다.

PEF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M&A(인수·합병)와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올리는 펀드를 말한다. 산은 PEF 부문은 KDB생명(옛 금호생명)과 대우건설 인수에 나서면서 최근 펀드 조성 규모가 5조

8000억원을 넘었다. 민유성 산은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11일 “올 상반기 은행 내 PEF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킬 예정”이라며 “산은금융의 대주주인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 PEF를 은행에서 분리해 독립계열사로 두면 은행 리스크(위험) 관리 규정이 벗어나고 (高)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투자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펀드 조성액 기준으로 산은 PEF는 국내에서 1위, 아시아 전체로는 3위 규모다. 분사한 후 이를 아시아 1위 규모로 키우겠다는 게 산은금융의 구상이다. 백종훈 조선경제 기자 iam100@chosun.com
전병남 조선경제 기자 fact@chosun.com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닥도 ‘활짝’

MARKET & MONEY

지난해 부진하던 코스닥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올 들어서만 4.5% 상승했다. 코스피지수가 연초 이후 1.8%가량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부진을 거듭하던 코스닥지수가 새해 들어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해 코스피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겨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1억원을 순매수하며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것)를 이어갔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만 코스닥시장에서 166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코스닥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 코스피지수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질 않아 가격 매력에 있는 데다 올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강수연 대우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시장보다 코스닥시장이 기업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당분간 코스닥시장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4면에 계속
김창 조선경제 기자 pumpkins@chosun.com

평생 IBK 당신도 IBK

IBK 기업은행 JOB WORLD
jobworld.chosun.com
www.ibkjob.co.kr

25292
전일 42명이 취업했습니다

청년취업 30000

조선일보·IBK 기업은행 일자리 프로젝트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일 제11-33호(2011.01.06~2012.01.05)

OPEN YOUR POP EYE!

삼성증권이 만든 프리미엄 온라인 투자 플랫폼

2010년 고객 예약자산 100조 돌파 기록을 세운 삼성증권
까다로운 자신들이 믿고 신뢰한 삼성증권의 투자실력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십시오
POPEYE 를 오픈하시는 순간, 당신의 투자종목이 분명해집니다. 투자실력이 높아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어드바이스 • 투자노하우를 주고받는 투자자클럽 AIC • 스스로 배워 투자하는 셀프레이딩 / e학습서비스

Event1 Stock Star Show! 투자자클럽에서 주식 Star 되기! Event2 제1회 삼성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Event3 미션! 종목을 찾아라

자세한 내용은 삼성 POPEYE 홈페이지(www.samsungpopeye.com)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리스크 등 증권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주식투자는 예금저축보육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따라서 차기 책임 원칙 하에 철저한 위험관리로 바탕으로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은 통해 주식거래 시 거래금액과 매매에 따라 거래금액의 0.0782~0.4082%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